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6월 1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DOWNSTATE 주유소 복원과 폭풍 이후 재난복구를 위해 1,200백만 달러 지원을 발표하다

Fuel NY를 통해 지원되는 자금으로 뉴욕시, 롱아일랜드 및 Lower Hudson Valley에 있는 주유소에 영구비상발전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큰 폭풍우와 긴급사태 발생 후 예비전력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다운스테이트 소매 주유소에 영구비상발전기 설치를 위한 1,200만 달러 지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원금은 전력 장애가 발생할 경우 주지사의 Fuel NY 이니셔티브에 따라 전략적으로 위치한 주유소가 가동을 하고 긴급구조원들과 커뮤니티 주민들에게 휘발유를 제공하는 활동을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발표는 여름 허리케인 발생 시즌이 시작하는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초강력태풍 Sandy가 발생했을 당시 주유소의 전력 문제로 복구 활동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허리케인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이 Fuel NY 지원금은 향후 긴급사태 발생 시 이 시나리오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도록 긴급 구조대원들이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심한 폭풍 또는 기타 주요 날씨 문제가 발생할 경우 휘발유를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2013년 시정연설에서 “Fuel NY”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초강력태풍 Sandy 때 발생한 휘발유 부족 사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으로 개발되었으며, 전략적 위치에 자리한 주유소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예비 전력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00만 달러 규모의 영구비상발전기 이니셔티브는 영구비상발전기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전략 주유소의 경쟁 기반을 바탕으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200대의 스테이션에 영구비상발전기 설치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연방비상관리기구의 자금을 사용합니다.

Fuel NY에 따라, 뉴욕주 에너지연구개발청은 뉴욕주 농업시장부와 국토안보긴급서비스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발생할 폭풍우와 에너지 비상사태를 대비한 뉴욕주 준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NYSERDA는 영구발전기 보조금

이니셔티브를 관리합니다. 이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주유소는 <http://www.nyserda.ny.gov/PON3256>를 방문하십시오. 지원금 신청서는 2016년 9월 15일까지 접수합니다.

극심한 폭풍이나 기타 악천후 발생 시 다운스테이트 주민들이 가솔린을 무리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구발전기 이니셔티브 외에도 Cuomo 주지사의 지도 하에 유틸리티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었고, 악천후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연방 및 주 보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롱아일랜드 전기 사용 고객들은 이미 7억3,000만 달러 규모의 폭풍 이후 재난복구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보고 있고, 정전 발생 가능성 및 새로운 현대적인 정전 관리 시스템으로부터 핵심 변전소를 보호하여 정전 사태를 보다 잘 추적하고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on Edison은 회사의 전기, 천연가스 및 증기 분배 시스템 강화를 위해 뉴욕주로부터 거의 4억6,0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을 지시 받았습니다.

NYSERDA의 사장 겸 CEO인 John B. Rhod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Fuel NY 이니셔티브는 기후 비상사태가 우리 주에 영향을 줄 때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뉴욕의 긴급 대응 및 준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의 종합적인 노력 활동의 일환으로 다운스테이트 주유소의 영구긴급발전기가 설치되면 지역의 급유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 커미셔너인 Richard A. Ba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Fuel NY는 악천후 발생 시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겠다는 Cuomo 주지사의 약속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농업시장부는 NYSERDA와 DHSES와 협력하여 뉴욕주가 긴급사태 발생 시 뉴욕주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인프라 업그레이드는 뉴욕주민들의 안전을 유지하고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국토안보비상서비스부의 커미셔너 John P. Melvill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난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들은 긴급구조원들이 단전 지역으로 가서 구조 활동을 하는 동안 신속히 해당 지역을 벗어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에서, 개인 차량 및 긴급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연료 확보는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지원금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전략적으로 배치된 주유소들이 예비 전력 발전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커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Fuel NY에 따라, 뉴욕주는 뉴욕시, 롱아일랜드, Rockland 및 Westchester 카운티에서 영구긴급전력발전기를 비치하지 않은 다운스테이트 주유소들에게 휴대용 영구긴급전력발전기를 배치할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1,200만 달러 규모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영구긴급전력발전기가 설치되면 전기 가용성의 속도를 높여 주유 펌프기가 작동될 것입니다. 나아가, 발전기 설치 시 복구 기간 동안 긴급 상황에서 휴대용 발전기의 필요성과 관련 비용 및 이 발전기를 확보, 전달 및 연결해야 하는 업무를 줄여줄 것입니다.

뉴욕은 또한 폭풍우 발생으로 뉴욕에 중요한 연료 공급이 중단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현재 250만 갤런 규모의 연료를 롱아일랜드에 공급하는 미국 최초의 **Strategic Gasoline Reserve**도 설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연료 또는 에너지 공급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구조대원을 지원하기 위해 약 250만 달러 규모의 휘발유와 초저유황경유를 Upstate New York에 소재한 전략 연료저장 터미널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

더 많은 뉴스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